

# “흑산공항 조기 착공 위해 행정절차 신속 완료”

### 김지사, 신안군서 도민과의 대화...현안 지원 약속 “천일염 시장 중간유통 단계 안정화 나설 것”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1천25개의 보석 같은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의 현안인 흑산공항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빠르게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신안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흑산공항 개항과 다이아몬드 제도의 연륙·연도교가 완성되면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박우량 신안군수와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김문수·최미숙 전남도의원, 박연호 신안소방서장 등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박우량 군수는 지도읍 주민의 정월 향유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라일락정원 조성 위한 사업비 5억원 지원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만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잘 살고 풍요로운 신안을 만들기 위해 어촌신활력사업,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신안의 자랑인 명품천일염의 유통·판매 확대를 위한 산지거점·유통·연구 센터 건립에 나서면서 ‘1도 1주지업’, 평화의

숲 조성 등 해양생태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민과의 대화를 직접 주재하면서 ▲지도읍 라일락 정원 조성(6억원) ▲장산면 대성산성 주변 탐방로 신설·정비 ▲하이면 국도 2호선(삼도대교-응곡 방면) 회전 교차로 변경 설치 ▲신안소방서 증도 119지역대 신설 ▲지방도 825호선(임자면 진리-도천리간 10.9km) 포장 ▲흑산도 방면 관광객 배차 50% 감면 요청 ▲신안천일염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을 꼼꼼히 챙겨 들은 뒤 담당 국장들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유도, 군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 지사는 “탐방로 정비사업의 경우 신안군의 복원 종합 정비 계획이 수립되면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하이면 위험도로 개선 대상지가 국도부 기본계획 반영 후 조속히 추진되도록 의산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또 “지방도 825호선의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119지역대 신설은 향후 소방 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둔 불안감으



19일 오후 신안군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3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시된 신안 특산품을 들어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천일염 시장에 대한 주민 건의도 이어졌다. 현재 20kg 한 포대에 13만5천원까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시장 위기 상황을 언급한 이철순 천일염산업연합회장의 건의를 청취한 김 지사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법령해석을 다시 확인하겠다”며 “(생산자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중간 유통 단계에서의 천일염 시장 안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 전남도 제4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첫 정기회의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지역 정착 논의

전남도는 1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청년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할 ‘제4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첫 정기 회의를 개최해 청년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정착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주용 전남도의원, 김애진 전남도체육회 밸리댄스연맹회장, 박성중 청암대 교수, 이석인 목포대 교수,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27일 ‘전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해 전남지사와 청년위원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최한 첫 정기 회의이다.

회의를 통해 이국헌 (사)한국청년회의소부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장현범 기획조정실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전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사항 설명과 청년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정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선출된 이국헌 공동위원장은 “청년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만드는데 위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청년발전위원회로 출발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전남도가 수립한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로 당원직 11명과 위촉직 28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특히 청년 위원은 20명(71.4%)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년 정책에 반영해 왔다.

김영록 지사는 “청년이 살아야 전남이 살고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며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복지·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의 대변자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 발굴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 광주시, ‘정당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정비

정당에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 자제 요청

광주시는 19일 “5개 자치구와 함께 오는 9월15일까지 정당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운남화 현상으로 기상이변이 잦은 여름철에 갑작스러운 자연재난 발생 시 불법광고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역을 집중 점검,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공동주택 분양·헬스클럽 가입 등 다량의 상업광고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 등에 게시된 집회신고만 돼 있고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현수막 ▲정당 현수막 중 법령·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다. /박성강 기자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2022년 12월11일)으로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 기간(15일) 등을 표기한 현수막은 허가, 신고, 금지,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다만,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2차, 2023년 5월8일)에 따르면 ▲신호기, 도로표지,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 ▲보행자 통행 장소 및 교차로 주변에 2m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 ▲가로등에 2개 초과해 설치된 현수막 등은 정당에 시정 요구 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정당에 공문 등을 보내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한 정비와 게시 자제를 요청했다.

## 도, 자전거길 정비·안전개선 공모 5곳 선정

전남도는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국도중주 자전거길 정비사업’과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공모에 5개소가 최종 선정돼 지역 맞춤형 자전거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재난안전 및 시책수요 특별교부세 14억1천만원 투입으로 2022년 4대강 정비 사업 이후 그동안 자전거 이용시설 후호에 따

른 이용자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국도중주 자전거길 정비 사업’에 ▲나주 영산강 자전거길 연결 ▲담양 영산강 및 섬진강 자전거도로 정비 ▲곡성 보성강 자전거길 정비 ▲영암 국도중주 자전거길 정비다. 또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엔 순천시 선정됐다. /김재정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백성포** 안오제

백성포 청년 단오제 **단오, 만사형통**

2023 영광법성포단오제

● 일시 : 2023. 6. 22.(목) ~ 6. 25.(일) 4일간

● 장소 :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및 법성포 뉴타운 일원 ● 문의 : 061-356-4331

● 주최 / 주관 :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 법성포단오제 제전위원회

● 후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단, 영광군, 영광군의회, 한수원주최한빛원자력본부, 영광군수협, 굴비골농협

영광군	농협중앙회영광군지부	지부장	조기영	백수농업협동조합
영광군의회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서영광농업협동조합
영광군교육지원청	교육장	고광진		영광군산림조합
한수원주최한빛원자력본부	본부장	최현규		굴비골농협협동조합
				영광농업협동조합